

安岳 3號墳의 服飾 研究 1

— 男子 服飾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희정

目 次	
I. 서론	4. 袴
II. 安岳 3號墳에 관한 史的 背景	5. 帶
III. 服飾 比較	6. 衫
1. 冠帽	IV. 結 論
2. 袍	참고문헌
3. 襦	ABSTRACT

I. 서론

1949년 발굴된 安岳 3號墳은 발굴 古墳 중 最大 규모의 古墳으로서, 풍부한 壁畫와 357年이라는 絶對年代가 기록되어 있어 高句麗 古墳研究에 중요한 資料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壁畫內容은 당시 生活史 研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人物들이 착용하고 있는 衣服은 服飾史 研究에도 다양한 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安岳 3號墳의 服飾에 관해서

는 이미 많은 高句麗 服飾에 관한 先行 研究¹⁾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學術的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古墳에 관한 研究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安岳 3號墳의 被葬者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論亂이 계속되고 있는데 墓制나 國際關係, 歷史畧, 壁畫內容 등의 資料를 통하여 이를 밝혀보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설이 구구할 뿐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어진 바는 없다.

본 研究에서는 현재 발표되어 있는 安岳 3號墳

- 1) 高福男(1987),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서울: 집문당).
- 김문숙(1996), “三國時代鈿帶에 관한 연구”, 복식 30.
- 俞文子(1984), “古代 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子(1991), “高句麗 衣服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41.
- _____ (1993),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 세종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호(1990), “高句麗 古墳壁畫 속의 服飾에 관한 研究”, 한남대논집20.
- 김진희(1986),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과 日本 埴輪服飾의 比較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朴京子(1968), “古墳壁畫에서 본 高句麗 服飾 소고”, 가정학논문집, (서울: 민중서관).
- _____ (1981), “德興里 古墳壁畫의 服飾史의 研究”, 복식 5.
- 박경자·이진경,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관한 研究”, 복식15.
- 劉頌玉(1980), “高句麗 服飾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일지사).
- 최원희(1962), “고구려 여자 옷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2,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과학원출판사

에 관한 謄書와 研究書 및 壁畫圖錄을 중심으로 이 古墳內 人物들의 服飾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壁畫에 묘사된 人物들이 25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服飾 形態도 다양한 만큼 研究對象을 男子服飾과 女子服飾 및 軍服 등의 기타 服飾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男子服飾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男子服飾을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고, 先行研究에서 이루어진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므로써 初期古墳時代의 服飾을 考察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나아가 安岳 3號墳에 관한 기존의 墓制나 政治, 歷史의 背景외에 服飾의 側面에서의 고찰을 통해 安岳 3號墳 被葬者의 身分을 규명하는 研究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제 壁畫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圖錄이나 寫眞, 記錄등에만 의존하여 考察하였으므로 세밀한 부분까지 다룰 수 없었던 制限점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研究와 調査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지리라 생각한다.

2. 安岳 3號墳에 관한 史的 背景

安岳 3號墳은 黃海道 安岳郡 龍順面 柳雪里에 소재한 壁畫古墳으로 墓室은 羨道, 前室, 側室, 後室, 回廊으로 이루어져 있다.

壁畫는 각 室의 벽면을 畫面삼아 被葬者의 生前

生活과 威嚴을 나타내기 위해 墓主夫婦 肖像畫, 儀仗圖, 舞樂圖, 廚房, 倉庫, 牛舍, 車庫, 行列圖, 守門將등을 그렸다. 이와 유사한 古墳양식으로는 台城里1號, 연꽃부덤, 平壤驛前墓, 龜神塚 등이 있고 遼陽의 王家村墓나 捧台子墓, 三道豪壁畫墓와도 樣式이 비슷하다.

이 古墳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古代 우리나라 墓制研究 및 古墳研究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壁畫의 墨書銘文에 永和 13년(A.D. 357)이라는 絶대년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壁畫變遷의 年代를 측정하고 나아가 당시의 生活相과 中國과의 關係까지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기준점을 提供하고 있기 때문에 考古學上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方面에 걸쳐 없이 귀중한 資料가 되고 있다.²⁾

그러나 아직까지 墓主에 관하여 精確하게 규명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古墳에 관한 여러가 지 사실들 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자들 마다 각기 다른 분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安岳 3號墳에 관한 논의는 크게 冬壽說⁴⁾과 王陵說¹⁾로 大分할 수 있으며 王陵說은 좀더 구체적으로 美川王陵說⁵⁾과 故國原王說⁶⁾로 나뉘는데 주로 古墳의 構造, 形式, 壁畫의 內容, 墨書銘文, 文獻史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前室 帳下 簷 위에 적혀 있는 墨書銘에는 被葬者인 冬壽의 死亡日字, 干支, 官職名, 出身地 등이 기록되어 있어

- 2) 金元龍(1989), 「韓國壁畫古墳」, pp.40~51, (서울: 일지사)
- 3) 孔錫龜(1989),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121. 金勇준, “안악 3호분의 연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3. 金元龍(1960), “高句麗 古墳壁畫의 起源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21, p.91. (1989), 「韓國美術史研究」, 일지사, p.381. 蔡秉瑞(1967),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2, pp.1~64. 宿白(1952), “朝鮮安岳所發現의 冬壽墓”, 「文物」1, pp.101~104. 李慶發(1959),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7, p.61. 洪淸玉(1959), “關于冬壽墓의 發現和 研究”, 「考古」1, pp.27~35.
- 4) 高句麗文化展覽行委員會(編)(1985), 「高句麗古墳壁畫史料集」3, p.22. 전주농(1959), “안악 하부덤에 대하여”, 「문화유산」5.
- 5) 金貞培(1978), “안악 3호분 피장자 논쟁에 대하여”, 「古文化」16, pp.12~25. 박운원(1963), “안악 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2. 주영현(1963),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2.
- 6) 李如星(1947), 「朝鮮服飾考」, (서울: 백양당).

이 古墳의 築造年代가 永和 13年(357年)이라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冬壽라는 人物은 前燕 慕容氏 휘하에서 高位官職을 지내다가 내란으로 336년 高句麗로 망명하였다고 한다.⁷⁾

당시 中國은 五胡 十六國의 혼란기로 남쪽에는 西晉에 이어 東晉(317~419)이, 華北·東北일대는 匈奴와 鮮卑族이 세를 겨루고 있었으며 그중 前燕은 北京 부근에서 遼東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鮮卑族의 나라였다. 高句麗에서는 美川王이 西安平과 遼陽지방으로 옮긴 玄菟를 경략하고 313년에는 樂浪을, 다음해에는 帶方을 공략하여 韓半島내 中國세력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百濟나 燕, 北魏등과 마찰이 생겨 침략을 받기도 하여서 故國原王 12년(342)에는 慕容皝에게 수도를 함락당하고 美川王의 遺骸까지 약탈되었다가 이듬해 되찾아 오기도 하였으며 옛 帶方의 古地인 黃海道에서는 百濟와 전투에서 故國原王이 전사(378)하는 사건이 있었다.⁸⁾ 한편 樂浪이 멸망한 이후에도 中國의 잔존세력이 남아있었던듯 高句麗는 427년이 되어서야 平壤으로 遷都하게 되고, 이때야 비로소 이 지역이 완전히 高句麗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古墳의 壁畫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즉 安岳 3號墳보다 반세기 늦은 德興里 古墳壁畫에서는 對象의 묘사가 中國 樣式으로부터의 이탈이 뚜렷하고 우리 基本服을 착용한 인물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을 뿐더러 약 1세기 후 築造된 安岳 1, 2號墳에서는 주요인물들이 대개 基本服을 착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安岳지역의 세력변동이 심한 시기에 中國係 人物의 墓地銘을 가진 古墳이므로 被葬者

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장자의 국적문제를 떠나서 安岳 3號墳의 服飾은 4,5세기 高句麗服飾은 물론 中期 이후의 服飾研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 古墳의 服飾研究는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壁畫내 服飾 비교를 통해 고찰하여 보고 나아가 묘주 문제에 관해서도 접근하여 보겠다.

3. 服飾 比較

安岳 3號墳 服飾 전반에 관하여 여러 研究를 통하여 이미 논의된 바가 있다. 金美子は 中國의 要所가 강한 壁畫로 安岳 3號墳과 德興里 古墳을 들고 있으며⁹⁾ 朴京子是 德興里 古墳壁畫 研究¹⁰⁾에서 安岳 3號墳의 人物服飾이 德興里와 傾向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고 李京子是 ‘下層階級에서는 우리 固有服飾이, 上層階級은 보다 中國의인 服飾을 착용하였으며 특히 墓主나 옆 侍從의 袍는 中國 것¹¹⁾’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高福男은 墓主의 衣服은 南北朝時代의 衣服과 일치¹²⁾한다고 하였다.

初期 研究者 중 한사람인 田 주농은 주인공의 服裝은 望都漢墓, 遼陽의 壁畫古墳과 유사한 中國의 것이며 기타 인물들도 漢代 中國服飾과 다르고 高句麗 服飾과도 다른 특이한 服飾¹³⁾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研究들을 참고로 하여 壁畫 중 男子服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冠 帽

7) 晉書 卷 五九 載紀 九 慕容皝傳

資治通鑑 卷 九十五 晉紀 十七

8) 국사편찬위원회(편)(1990), 「한국사」2 고대, (서울 : 탐구당).

9) 金美子(1991), p.54.

10) 朴京子(1981), p.59.

11) 李京子(1983), p.119.

12) 高福男(1987), p.116.

13) 田 주농(1959), p.17.

安岳 3號墳에서 冠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男子이며 형태에 따라 冠, 幘, 巾등으로 나뉘어 진다.

冠을 쓰고 있는 인물로 墓主를 들 수 있는데(도 1) 黑色의 內冠과 양귀 근처까지 내려덮혀 內冠을



(도 1) 安岳 3號墳 墓主 肖像畫
(주영현 「高句麗古墳壁畫」)

둘러싸고 있는 外冠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冠은 감두 형태로 안에 있는 白色屋이 약간 보인다. 안이 비쳐 보이는 外冠으로 인하여 이 冠이 白羅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古墳이 王陵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¹⁴⁾ 이와 유사한 冠帽은 德興里 古墳을 비롯하여 台城里 1號墳, 雙盈塚, 龍神塚 墓主등이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中國 遼寧省 朝

陽에서 1982년 발굴된 4세기 初, 中期것으로 추정되는 東晉 古墳의 墓主¹⁵⁾도 이와 같은 형태의 冠帽을 쓰고 있으며 黑領右袵袍를 착용한 것이나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것등 유사한 점이 많다. (도 2) 朝陽은 初期 前燕의 首都이기도 하였으며 遼陽, 北票등과 함께 後期 南北朝 時代의 古墳이 널리 분포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冠의 側面은 行列圖 내에 있는 墓主의 側面圖(도 3-1)에서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八清里古墳의 墓主 側面圖나 藥水里 行列圖(도 3-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망사와 같은 제질로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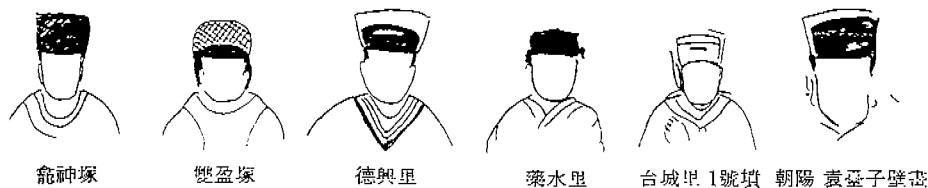


八清里 藥水里

(도 3-1) 墓主(行列圖內) (도 3-2) 墓主 側面圖

冠의 뒷부분 위에 얹혀진 二重冠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墓主만이 착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最高의 신분을 갖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幘은 後頭部의 角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즉 뒷부분의 뾰족한 角이 두갈래로 나뉘어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과 뒤쪽이 뾰족하게 뒤로



(도 2) 墓主 冠帽 模寫圖

14) 舊唐書 卷 百九十九 上 列傳 東夷 高麗

15) 朝陽縣文化館(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6期.



(도 4-1) 幘



(도 4-2) 巾

솟아 있는 것이다. (도 4-1) 前者는 記室, 省氏, 門下拜, 儀仗旗手 등 대개 袍를 착용하고 있는 文官이, 後者는 斧鉞手, 帳下督 등 襦袴 착용자나 武官이 주로 착용하고 있다.¹⁶⁾ 그런데 行列圖 先頭에 말을 탄 채 이 행렬과 마주보고 있는 人物은 角이 두 개인 幘을 쓰고서 右衽이 뚜렷한 赤色 襦와 袴를 착용하였는데 이 古墳壁畫를 통해 유일한 경우이다. 이 騎馬人物은 마주오는 袍 착용자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襦袴 역시 다른 武士들 보다 관할하며 말 장식 또한 특이하다. 그러므로 이 人物은 行列을 마중하는 土着民의 地方官 吏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古墳내 幘은 대부분 黑色이지만 角이 두 개인 幘을 착용하고 있는 儀仗旗手의 경우에는 앞이나 부분이 赤色이고, 斧鉞手는 표면은 赤色이고 안쪽은 黑色인 角이 하나인 幘을 쓰고 있다. 이는 색깔에 의한 身分이나 직책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句麗 幘에 收가 없다는 것¹⁷⁾이 中國 幘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들 수 있는데 安岳古墳의 幘도 收가 없다는 점에서 高句麗의 인 특징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나 新疆 維吾爾 吐魯番의 16國時代 古墳¹⁸⁾에서도 角이 두 개닥이고 收가 없는 幘을 墓主가 쓰고 있는 壁畫가 있고, 遼東 營城子 後漢大墓에는 收가 없이 뒤가 솟은 幘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高句麗가 이러한 形態의 幘을 받아들이기 以前에 이미 中國에서도 收가 없는 幘이 사용되지 않

았나 추측되나 좀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古墳에 나타나고 있는 巾(도 4-2)은 黑色 布로 머리를 감싸고 뒷통수에서 맨 후 끝을 늘어뜨리고 있다. 巾을 쓰고 있는 인물들은 行列圖 중 복을 들고 가는 사람들과 뿔나팔을 부는 樂手 등이 착용하고 있는데 幘보다 비교적 낮은 신분의 쓰개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古墳들에서는 巾 착용이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幘의 착용이 훨씬 많다. 그러나 以後 古墳들에서는 墓主 側近臣들이나 狩獵人들도 착용하는 등 많은 上流層 인물들도 巾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해 安岳 3號墳에서는 대부분이 幘을 착용하고 있고 또한 中後期 古墳壁畫나 文獻 등에 나타나는 折風이나 弁 등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교되고 있다.

2. 袍

袍를 착용하고 있는 인물은 墓主와 左右 신하를 비롯하여 儀仗旗手, 行列圖 중 행렬 앞쪽에 角이 두 개인 幘을 쓴 高位者 등이 입고 있다. 襦의 색이 다양한데 비해 袍色은 白色 같은 열은 단색이 대부분이다.

墓主의 肖像畫는(도 1) 이 古墳 壁畫 중 유일한 정면상으로 坐床 위에 坐坐를 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귀면이 그려진 갈색 털부채를 들고 있고 왼손은 가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자세는 德興里古墳이나 八清里古墳 등 前期 古墳 墓主 肖像畫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 한손에 부채를 드는 것은 西晉 이후의 風習으로 東晉 士大夫들이 즐겨 사용하였으며¹⁹⁾ 宋 때 폐지된 南朝의 인 특징²⁰⁾이라고 한다.

墓主는 舍衽의 紫色袍를 착용하고 있다. 이 衽과 領制에 관해 直領과 曲領이 함께 착용되었다²¹⁾

16) 姜淳第(1992),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4~16.

17) 後漢書 卷百十五 高句麗, “大加主薄皆著幘如冠 幘而無後”

三國志 卷三十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大加主薄頭著幘如幘而無後”

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大加主薄 頭所著以幘而無後”

18) 「中國美術全集」(1989), 繪畫 1, 圖 92.

19) 杉本正年(1984), 「東洋服裝史論考」中世, (東京: 文化出版局), p.60.

20) 周錫保(1981),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南天書局), p.161.

21)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일지사), p.112~113.

고 보기도 하고 이와 유사한 衣服을 착용한 德興 里古墳 墓主의 경우에는 衾衽曲領이라는 견해²²⁾도 있다. 한편 옷깃, 수구에 襟이 있는 窄袖袍²³⁾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袍안에 右衽의 白色 의복 깃이 보이고 그 위에 다시 衾衽의 황갈색 의복을 입고 있으며 다시 깃이 달라지 않고 白色 점이 찍힌 黑色 목선의 紫色 袍가 그 위에 덧입혀져, 고대선에서 안의 옷과 분리되어 어깨로 넘어가서 어깨근처에 3개의 물결무늬를 이루면서 소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어깨선에선 안에 입고 있는 의복이 희미하게 내비치고 있어 袍의 재질이 얇은 것임을 알게 한다. 3개의 衣服을 겹쳐 입고 있음은 소매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가장 안쪽에 白色, 다시 黃갈색의 소매끝, 그 위에 袍의 소매가 가장 겉에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슴에 있는 葉形의 두 개의 장식물은 깃이 없는 衾衽 袍의 여밈용 끈 장식이 아닐까. 또한 이 紫色 袍의 衣褶 표현은 記號 등의 衣服에서와는 달리 굵고 가는 붉은 색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안이 비치도록 얇고 고운 재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服飾에 있어 이러한 衣褶의 표현은 東晉 顧愷之의 列女傳圖卷에 등장하는 男女 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어깨부분에 두세개의 물결 같은 주름이 있는 얇은 의복이, 주름선과 함께 색의 濃淡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입혀졌던 表袍의 한 종류인지 혹은 유행되었던 服飾의 한 표현 방법인지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袍의 소매는 수구쪽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袂形態라고 볼 수 있으며,²⁴⁾ 소매통은 이 고분내 襦에 비해서는 넓으나 당시 中國의 南朝時代 袍나 德興 里古墳의 袍에 비해서 그다지 넓다고 볼 수는 없다.

墓主의 경우에는 坐像이기 때문에 허리 아래의 袍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주변 신하들의 것과 大同

小異하리라고 생각된다.

左右에 있는 신하들의 袍도 色과 帶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墓主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白色 內衣, 衾衽의 黃갈색 衣服 깃, 그 위에 안이 비치어 보이는 衣服을 덧착용하고 있는데 色相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 각 인물의 크기가 다른 것과 연결지어 볼 때 色으로 階級을 구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5) 儀仗旗手의 袍

儀仗旗手의 袍(도 5)는 안에 白色 內衣를 착용하였고 깃, 수구, 도련동에 黑色 襟을 들렀으며 소매도 襦보다는 넓으나 앞서의 袍보다는 좁아 거의 筒袖 형태이다. 袍 길이도 다소 짧아 아래에 白色 衣服 밑단과 신이 보인다. 그렇다면 白色 內衣는 後代의 中單처럼 表袍 안에 맞춰 입는 역할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行列圖 앞쪽에 있는 騎馬人物의 白色 袍에는 背色襟이 둘러있고 袍 아래에 袴를 착용하고 있으며 旗등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결과 袍는 白色과 같이 진하지 않은 색이 대부분이고 襦에 비해 高位官職者가 주로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淡袍와 매우 흡사하여 中國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⁵⁾

3. 襦

安岳 3號墳의 남자 服裝은 袍외에는 襦袴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服裝形態가 비교적 뚜렷한 帳下督, 守門將, 斧鉞手, 儀仗旗手, 樂手 등의 襦를

22) 朴京子(1981), “德興里古墳壁畫의 服飾史의 研究”, 服飾 5, p.48.

23) 金美子(1993), p.62.

24) 金美子(1993),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



(도 6) 行列圖 模寫圖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 6)

襦는 둔부길이에 깃, 수구, 도련등에 襟이 있고 허리에서 帶로 여몄는데 대개 공수자세이거나 물건을 들고 있어서 帶가 가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도 7-1) 여밈의 방향은 목 앞에서는 깃이 直領舍襟의 形態이나, 行列圖 內의 襦중에는 右襟이 뚜렷한 것이 많다. 그런데 斧鉞手의 襦는 손아래로 보이는 옷자락이 左襟이고, 깃 아래의 갈라진 붉은 두 線을 옷고름으로 보기도 한다.²⁵⁾(도 7-2). 左右襟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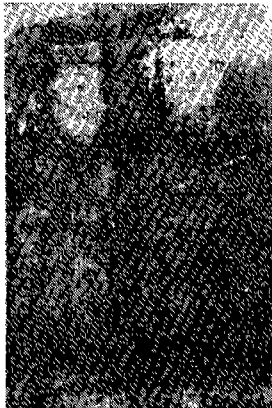


守門將 模寫圖



儀仗旗手 模寫圖

(도 7-1) 襦



(도 7-2) 斧鉞手의 襦

정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推論하여 보면 우선 南北朝時期的 中國에서도 胡服의 영향으로 左右襟이 혼용되어²⁷⁾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가지는 中國式 右襟을 입은 人物들과 함께 아직 左襟의 기본복을 착용하고 있는 高句麗人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옷고름에 관하여서도 이미 德興里 古墳壁畫의 襦에서 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²⁸⁾

깃의 襦는 좌우 깃끝이 만나는 점에서 끝나 있고 그 아래까지 연장되지 않아 舍襟같이 보이는데 이점은 德興里 古墳에서도 마찬가지로나 通構지역에 있는 基本服의 깃 襟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色은 襦와 同色이거나 靑色 혹은 赤色등으로 달리하기도 하였다.

守門將이나 儀仗旗手が 착용한 襦의 도련에 달린 襟은 꽤 넓은데, 중간에 가로로 線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종의 장식이거나 혹은 襟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천을 가로로 잇댄 표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깃 안쪽에는 白色 衣服 깃이 보이므로 袍와 마찬가지로 겹쳐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儀仗旗手등의 白色 內衣의 깃은 목 위까지 올라와 보이는 반면, 軍士들은 안에 등근 목선의 內衣를 입고 있어 內衣 깃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위간의 차이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 通構 古墳에서는 上流層 襦 안에도 등근 목선의 內衣를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기서와 같이 목을 덮을 만큼 올라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소매는 筒袖로 이에 관하여 中國文獻에 ‘筒袖衫’²⁹⁾ ‘衫筒袖’³⁰⁾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손목부

25) 金美子(1993), p.33.

李京子(1983), p.113.

金貞鎬(1990), “高句麗 古墳壁畫服飾과 社會階層”, 복식 15, p.91.

26) 주영현(1985),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p.48.

27) 王宇清(1973), 「中國服裝史綱」, p.102.

28) 박경자(1981), p.47.

29) 荆書 卷 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高麗 ‘丈夫衣筒袖衫’

30) 新唐書 卷 二百二十 列傳 百十五 東夷 高麗 ‘衫筒袖’

터 어깨까지 통이 일정하게 좁으며 길어도 짧아 손목이 다 드러날 정도이고 소매 끝에는 白色 衣服이 내어 보이고 있다.

服色은 儀仗旗手는 靑色과 白色에 열은 靑色 襟이 있는 襦를 교대로 착용하고 있고, 斧鉞手나 樂手는 白色에 衣褶은 붉은 線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赤色 襟으로 장식되어 있다. 行列圖 軍士服도 靑, 黑, 白, 綠色등이 있는데 직책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襟은 襦와 같거나 다른 色으로 장식하였고 대부분이 襦袴의 色을 달리하고 있다.

4. 袴

安岳 3號墳에서 착용되고 있는 下衣는 袴이다. 袴는 그림이 탈락된 경우가 많아 뚜렷하게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襦의 수보다 적다.

이 고분벽화에 나타난 袴의 형태는 길이에 따라 발목까지 오는 긴 袴와 무릎길이의 짧은 袴로 구분할 수 있고 발목길이의 것은 다시 통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다.

대부분이 긴 袴(도 8-1)를 착용하고 있고 바지 부리에는 同色 또는 異色 襟을 달아 약간 오므렸다. 帳下督 袴의 襟은 다른 袴의 襟보다 넓으며 赤色 잔 줄무늬가 있다. 樂手의 경우에는 둔부에 비해 아래쪽이 급하게 좁아지며 발목에 끈을 묶지는 않았으나 마치 현대의 한복바지 부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짧은 袴(도 8-2)는 무릎길이로 行列圖 중 弓



(도 8-1) 袴

手, 斧鉞手, 槍手, 鼓手등이 입고 있는데 아마도 행동의 민첩함을 위함일 것이다. 이 바지부리에도 역시 同色 襟 흔적이 있으나 활동편리를 위해 긴 袴를 접어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 靴을 신은 경우에는 긴 바지를 靴 안에 넣은 것 같으며 행전을 무릎 아래에 두른 것도 있다.

통이 넓은 것은 儀仗旗手, 帳下督, 守門將, 騎馬人物등이 착용하였는데, 윗부분에 주름선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관활한 것 같으나 통이 넓다고는 하여도 통구지역 古墳의 墓土등이 착용하고 있는 寬袴만큼 관활하지는 않다. 高句麗 袴의 形態에 관한 기록으로는 窮袴, 大口袴, 大口袴³¹⁾등이 있으나 이러한 형태 때문에 先行研究에서도 대부분 細袴로 분류하고 있으며 前期 古墳에서는 거의 細袴를 착용하고 있어서 바지폭이 넓어지는 것은 中期古墳 이후부터 뚜렷해진다.³²⁾ 行列圖 軍士와 舞踊手등이 좁은 바지를 입은 것은 역시 활동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行列圖 전배의 袍 착용자들도 袍 아래에 폭이 좁은 袴를 착용하고 있다.

袴의 형태는 通袴地域 基本服의 袴와 바지라고 하는 形態面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基本服의 袴에서 볼 수 있었던 둔부 뒤쪽의 처짐이 없고 부리를 묶은 着裝 모습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5. 帶

袍와 襦의 허리는 帶를 들렀는데, 재질에 따라 布帛帶類와 鍔帶, 革帶로 나뉘지며, 身分과 衣服



(도 8-2) 行列圖 軍士

31) '窮袴'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高麗, 通典 卷百八十六 高句麗條

'大口袴'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大口袴'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高麗,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誌二 色服

32) 李京子(1983), pp.104~105.

에 따라 착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대개 袍에는 布帛帶類, 襦에는 布帛帶나 鈎帶, 革帶類가 사용되고 있다.



(도 9-1) 墓主의 帶



德興里 墓主



丁家崗 5號墓 墓主

(도 9-2) 帶

墓主는(도 9-1) 두개의 帶를 매고 있는데, 즉 붉은 색실을 섞어짜서 帶의 끝에 붉은 색 술을 붙여 장식한 帶와 이 위로 두른 黑色帶로, 이 帶에는 사슴 다리같이 생긴 3개의 장식품이 앞쪽에 있고 매듭은 뒤에서 맨 듯 좌우 팔 뒤쪽에 白色線으로 장식한 帶부분이 조금 나와 있다. 前者는 布帛帶라기보다는 組紐帶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袍를 여미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黑色帶는 장식적 혹은 지위를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두개의 帶를 德興里 墓主도(도 9-2) 착용하고 있는데 차이라면 組紐帶 대신 布帛帶 같은 것을 두르고 한코 매듭을 지어 매듭이 위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黑色帶의 늘어진 장식 3개의 끝이 한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이 늘어진 장식은 끝이 등글고 꼬부라져 있으며 가운데 부분은 한번 꺾여있는데 원래 이러한 형태인지 아니면 坐像이므로 무릎에서 꺾여진 것인지 이 帶가 두 古墳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1977년 甘肅省 酒泉市서 발견된 十六國時代 丁家崗 5號墓의 墓主 衣服³³⁾은 三梁進賢冠을 쓴 것외에는 安岳 3號墳 墓主와 흡사하며 기타 인물들의 服飾도 유사

한 것이 많다. 허리에 맨 黑色帶가 앞서의 두 古墳 것과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서 동일한 衣服과 帶가 착용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甘肅省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南北朝時期에 北方 胡族들과 중원과의 경계지역으로, 胡服의 鈎帶 영향을 받아 中國化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 帶는 우리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중앙아시아나 기마민족에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또한 신하들 중에서는 이 帶를 매고 있는 경우 없는 것으로 미루어 特權者에게만 허용된 權威의 상징물이라고 생각된다.

記號은 가운데 줄이 있는 布帛帶를 앞에서 매고 있고(도 1) 袍를 착용한 儀仗旗手도 布帛帶를 느슨하게 매고 앞에 매듭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도 5)

그 외에도 行列圖 중 袍를 착용한 인물들은 대개 布帛帶를 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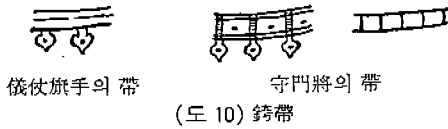
襦에는 帶와 布帛帶 혹은 革帶가 사용되었지만, 布帛帶의 경우 袍의 것보다 단순하고 매듭은 대개 앞에서 맺고 있다. 南北朝時代 中國의 壁畫古墳이나 우리나라 鎧馬塚 玄奘 人物에서는 布帛帶를 뒤로 맨 것도 발견되고 있으나 이 古墳에서는 行列圖 중 墓主 수레 앞에 칼은 舞踊手의 赤色帶외에는 거의가 앞여밈이다.

襦袴차림의 儀仗旗手는 白色帶를 하고 있는데, 帶에 心葉形장식(도 10)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려 있어 鈎帶로 보인다. 帳下壼과 같은 위치에 있는 守門將들도 각기 특색있는 鈎帶를 착용하였다. 그런데 두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鉸鉤나 맺음 방법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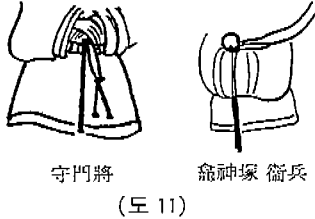
遊牧騎馬民族인 ‘鮮卑’는 그 語源이 騎馬人의 帶鉤나 帶鉤를 착용한다는 意味라고 한다. 이와 같이 帶에 帶鉤를 다는 양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遊牧騎馬民族의 특징³⁴⁾이고 또한 낙랑시대 遺物중에는 中國化된 棒形 帶鉤도 널리 출토된

33) 「中國美術全集」(1989), 繪畫 12, 墓室壁畫 圖 45.

34) 金子文子(1996). “古代 우리나라 帶鉤에 대한 研究”, 복식 27, p.18.



儀仗旗手的帶 守門將의帶
(도 10) 鎡帶



守門將 龕神塚 衛兵
(도 11)

다고 하며 또한 墨書銘에 나오는 冬壽가 鮮卑族系의 燕에서 망명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鎡帶의 鈹具에도 帶鉤가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高句麗 鎡帶에 관하여 ‘銀帶’ ‘革帶皆金鈹’³⁵⁾ 등의 기록이 있고 韓安의 高句麗 古墳에서도 鎡帶遺物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高句麗에서도 鎡帶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西晉 것과 같아 輸入品으로 보는 견해³⁶⁾도 있으며, 한편 4세기경 江蘇省 宜興의 東晉 古墳에서 발견된 鎡帶는 우리나라 것과 형태가 같으면서도 시기적으로 앞서는 형태라는 점에서 鎡帶의 北方胡族 전파설과 함께 中國을 통한 전파설³⁷⁾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守門將들의 鎡帶가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 물론 이것은 高句麗 지역에서도 鎡帶가 사용되었다는 좋은 繪畫的 資料가 될 것이다.

이중 칼을 잡고 있는 西側室 守門將의 손아래, 가늘고 끝이 동그랗게 말려서 매듭끈과 같은 黑色 끈이 내려져 있는데, 龕神塚 襦袴의 武士(도 11)가 든 칼에 달린 끈의 예로 보아 이것 역시 칼에서 늘어진 것이라고 본다. 앞서의 丁家崗 5號墓에는 安岳 3號墳 守門將과 똑같은 服裝의 武士가 칼을 들고 평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있다.

樂手나 行列圖 軍士의 帶에는 鎡帶장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鎡帶가 儀仗用이거나 특정 身分用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신(도 8-1, 2)

이 古墳에서 나타나는 신은 靴와 履이나, 行列圖 軍士를 제외한 대부분이 코 끝이 약간 올라간 黑色 履을 신었다. 재질은 가죽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履은 儀仗旗手, 袍를 착용한 騎馬人物, 軍士들이 白色 襪과 함께 신었으며 冢卒과 복을 든 軍士들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黑靴를 신고 있다.

通橋 古墳에 보이는 기본복에는 靴 착용이 많은데, 여기서는 行列중인 冢士까지도 대부분 履을 신은 것이 비교된다.

IV. 結 論

지금까지 安岳 3號墳의 男子服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服飾 전체적으로 보아 德興里古墳, 八清里古墳, 宍城里 1號墳 등 樂浪과 帶方이 위치했던 平壤과 黃海道地域에 위치한 初期 古墳壁畫의 服飾과 밀접한 聯繫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遼東과 東晉 勢力圈下에 있던 지역의 古墳壁畫 服飾과의 관련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顧愷之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세련된 南朝風이라기 보다는 魏晉 十六國時代 東晉의 東北 및 西北地方에 형성된 壁畫古墳의 服飾에 보다 가깝다.

冠帽은 墓主의 冠, 角이 두 개인 幘과 하나인 幘, 巾등을 쓰고 있는데 高位 官職者는 앞의 두 冠帽을, 武官과 下位職들은 角이 하나인 幘이나 巾을 사용하였으며 色에 따른 구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以後의 古墳들에 비해 巾보다 幘 착용이 훨씬 많은 특징이 있으며 折風이나 弁의 착용

35) ‘銀帶’ 繪苑 蕃夷部

‘革帶皆金鈹’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第百十五 東夷 高麗

36) 金元龍(1993), 「韓國考古學概論」, (서울: 일지사), pp.173~174.

37) 안명숙(1976), “한국과대의 역사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8~9.

은 찾아 볼 수 없다.

衣服도 地位에 따른 차이가 있어 身分이 높을수록 袍를, 낮을수록 襦袴를 착용하였으며 폭과 길이등에도 차이가 있다. 두 衣服 모두 여러벌의 옷을 겹쳐 입고 있는 形態를 보여 주며 帶로 여미고 있다. 옷의 여밈은 衾이거나 右衽인데 前室 南壁 斧鉞手는 左衽의 襦를 입고 있으며 옷고름을 달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上流層은 中國式 袍를 착용하였을 지라도 底邊의 庶民들은 우리나라의 基本服을 착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통치했던 歸化人과 高句麗人과의 融合을 意味하는 것이라고도 추측되며, 以後 이 지역 古墳壁畫에 볼 수 있듯이 점차 우리 基本服의 착용이 많아 지는 것은 高句麗의 支配權이 확고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墓主에 관하여서는 冬壽說과 王陵說로 나누어 지는데 앞서서 살펴본 服飾을 가지고 볼 때, 壁畫내 服飾들은 人物描寫의 세밀함과 製作過程上의 성실성에 미루어 어느정도 사실에 근거해 그렸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墓主의 服飾은 高句麗의 服飾 요소보다 中國의 성격이 농후하고, 中後期로 이어지는 高句麗 古墳의 墓主 服飾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燕에서 高位官職을 지냈던 冬壽가 우리나라에 망명하여 名目上의 官職일지라도 樂浪相, 玄菟, 帶方太守를 歷任했던 人物인데 記室, 小史까지 입고 있는 袍를 입지 않고 墓의 守門將격인 帳下督과 같은 襦袴를 입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德興里 古墳 墓主에게 拜謁하러온 13太守의 袍와 비교해 보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安岳 3號墳의 被葬者에 관하여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고 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服飾만 가지고 간단히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앞서의 고찰 결과를 가지고 볼 때 下層階級은 우리 固有服飾을, 上層階級은 보다 中國的인 服飾을 하고 있어 墓主는 高句麗系 王이라고 보다는 이 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졌던 冬壽라고 보는 것이 服飾에 나타난 사실과 부합된다고 한 李京子 교수의 見解³⁸⁾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冬壽가 鮮卑族系 人物이라 할지라도 歸化하였으므로 高句麗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세력여부를 떠나 이미 공식적으로 高句麗 領土가 된 지역을 다스리는 高句麗의 地方官吏였다. 따라서 墓主가 착용하고 있는 服飾은 高句麗 服의 한 類型이 될 것이고 사실 支配層 일부는 이러한 服飾을 착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墓主의 眞 國籍이 어디든 高句麗 歷史에 속하는 人物의 服飾이므로 高句麗 服飾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資治通鑑 晉書 隋書 周書 三國史記 三國志 新唐書 通典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실(편), 「안악 3호분발굴 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
- 高句麗文化展覽行委員會(編)(1985), 「高句麗古墳壁畫史料集」3, 1985.
-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서울: 집문당, 1987.
- 孔錫龜,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1989.
- 국사편찬위원회(편), 「韓國史」2, 탐구당, 1990.
- 金基雄, 「고구려 고분벽화」, 서문당, 1989.
- 김문숙, “三國時代 跨帶에 관한 연구”, 복식 30, 1989.
- 金文子, “古代 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金美子, “高句麗 衣服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41, 1991.
- _____,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8) 李京子(1983), p.119.

- 문, 1993.
- 金元龍, “高句麗 古墳壁畫의 起源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21, 1960.
 - _____, 「韓國美術史 研究」, 일지사, 1989.
 - _____, 「韓國壁畫古墳」, 일지사, 1989.
 - 金貞培, “安岳 3號墳 피장자 論爭”, <古文化> 16, 1978. 6.
 - 金貞鎬, “高句麗 古墳壁畫服飾과 社會階層”, 복식 15, 1990. 10
 - 김진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과 日本 埴輪服飾의 比較研究”,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朴京子, “古墳壁畫에서 본 高句麗 服飾 소고”, 가정학논문집, 서울: 민중서관, 1968.
 - _____, “德興里 古墳壁畫의 服飾史的 研究”, 복식 5, 1981.
 - 박경자·이진경, “東北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관한 研究”, 복식15, 1990.
 - 박윤원, “안악 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2, 1963.
 - 安明淑, “韓國鈐帶의 歷史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연구논문, 1976.
 - 安輝濬, “韓國 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
 - 劉頌玉, “高句麗 服飾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이대출판사, 1994.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일지사, 1983.
 - 이기백·이기동(共著), 「韓國史講座」1, 일조각, 1990.
 - 李文信, “遼陽發現의 三座壁畫古墳”, 文物, 1955 5기.
 - 전주농, “안악하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5, 1959.
 - 朝陽縣文化館,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1984. 6기
 - 주영현,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2, 1963.
 - _____, 「高句麗 壁畫古墳」, 朝鮮畫報社 1977.
 - 蔡秉瑞, “安岳地方의 壁畫古墳”, 白山學報 2, 1967.
 - 최원희, “고구려 여자 옷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2,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과학원출판사
 - 김용준, “안악 3호분의 연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
 - 士居淑子, 「古代中國의 畫像石」, 同朋舍出版, 1986.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文化出版局, 1984.
 - 樺 泓, “高句麗壁畫石墓”, 文物, 4기.
 - 李慶發,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 1959. 7.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南天書局, 1981.
 - 洪清玉, “關于冬壽墓的發現和研究”, 考古, 1959. 1
 - 朝鮮古蹟圖譜 2.
 - 「조선유적유물도감」5 고구려 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 「中國美術全集」繪畫篇12,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 1989.
 - 「中國美術全集」繪畫1, 南北朝繪畫,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 1989.
 - 「樂浪彩簾塚」, 朝鮮古蹟研究會(編), 民族文化, 1986.
 - 東亞日報 1989. 2. 28.

ABSTRACT

A study on Clothing of Murals in Anak No. 3 I

Anak No. 3, the largest tomb that has ever been unearthed in Korea, bear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study of tomb and other related subjects because it represents a specific era in history. The clothing on murals of Anak No. 3, among other things, provides a great deal of materials for the study on the history of clothing.

We have discussed the male clothing on the

murals, dividing it into various categories such as official Kwan Mo, Po, Yu, Go, Dae, Shin, etc. The clothing displayed a strong Chinese influence, but, at the same time, also contained some elements of the Koguryo era. This fact shows the combination of the two cultures.

There are two theories over whose tomb

Anak No. 3 is "King's tomb" theory and "Dong Su" theory. Based on the result of examination of the tomb through the clothing, "Dong Su" theory is considered to be logical. The clothing on the murals can be regarded as Korean even if the tomb is that of a Chinese, because that person is a part of the history of Koguryo.